

# 精氣神血科의 形象에 대한 연구

이용태\* · 최병태<sup>1</sup> · 최영현<sup>2</sup> · 백근기<sup>3</sup>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방바이오연구센터, 1: 해부학교실, 2: 생화학교실, 3: 명세한의원

## Study on the Shapes of Jung-kwa, Gi-kwa, Sin-kwa, Hyul-kwa

Yong Tae Lee\*, Byung Tae Choi<sup>1</sup>, Yung Hyun Choi<sup>2</sup>, Geun Gi Baek<sup>3</sup>

Department of Physiology ·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1: Department of Anatomy, 2: Department of Biochemis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3: Myung Se Oriental Clinic

After study about the shapes of Jung, Gi, Sin, Hyul-kwa advocated by Master Jisan, the conclusions are drawn as follows. It pursues the rules of universe being changed from formless to concrete objects that the Body Essence, Vital energy, Mentality, and Blood are materialized to Jung, Gi, Sin, Hyul-kwa. It can be drawn an inference from the next three theories that Jisan considered Jung, Gi, Sin, Hyul-kwa as round, square, reverse triangle, and triangle or oval shape. First, it was taken to following the shapes of viscera. Namely Jung-kwa was taken as Kidney, Gi-kwa as Lung, Sin-kwa as Heart, Hyul-kwa as Liver. Second, it was adopted from five kinds of constitutions according to the five elements in 《Yeongchu · Yin and Yang twenty five shapes》 that is Jung-kwa is purchased with Water-earth phases, Gi-kwa with metal phase Sin-kwa with fire phase, Hyul-kwa with Wood phase, Third, it is taken in order to eliminate contradictions. Hyul-kwa disliking to move is assumed to round shape to easily move. Gi-kwa tending to disperse is chosen to square in order to be unmoved. Sin-kwa declining to stagnate of seven emotions is pursued to reverse triangle to compose oneself. Hyul-kwa inclining to gather is preferred to acreage phase to harmonize ascending tendency. Among shapes which Jisan was divided Hado, Nakseo, Bokhee pal kwoe, Moonwang pal kwoe, Jung-kwa as round is Hado, Gi-kwa as square is Nakseo, Sin-kwa as reverse triangle is Bokhee pal kwoe order shape, Hyul-kwa as acreage phase or oval shape is accord with Moonwang pal kwoe order shape. The reason being classified into Jung, Gi, Sin, Hyul-kwa from the shapes of the face is that the face is the place to reflect the whole conditions of the body connected with all of the viscera and meridian system such as semen of plants. Above contents are drawn an inference from the transcription of Jisan's lectures and his writings. And it is considered that insufficient parts of the Jisan's theory must be demonstrated continuously.

Key words : Jung-kwa, Gi-kwa, Sin-kwa, Hyul-kwa, hyungsang medicine

### 서 론

芑山이 주장한 다양한 形象 분류 중에는 男女老少, 臍膀胱體, 精氣神血科, 臟腑 形象,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內經》에 나오는 形象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芑山이 더욱 연구 · 발전시킨 것이다.

이중에서 臟腑 形象에 대한 내용은 臟象論과 일치하며 《內經》과 《東醫寶鑑》에 잘 제시되어 있고, 魚鳥走甲類에 대해서는 《內經》과 《易學原理講話》에서 理論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男女에 대해서는 具<sup>1)</sup>가 논문을 통하여 논증하였고, 臍膀胱體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논술한 바<sup>2)</sup> 있다. 六經形은 《東醫寶鑑 · 寒門》의 六經形證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나, 精氣神血科는 芑山の 독창적인 形象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芑山은 人身의 基本 요소인 精氣神血을<sup>3)</sup> 4가지 얼굴형으로 나누어 精科 · 氣科 · 神科 · 血科로 나타내었다.<sup>4)</sup> 지금까지 일정한 형태가 없는 精氣神血을 有形한 얼굴의 形象으로 표현한 문헌은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5/07/19 · 수정 : 2005/08/23 · 채택 : 2005/09/21

1) 구교성, 男女에 대한 形象醫學의 考察, 대한전통한의학회 논문집, 1999  
 2) 백근기, 芑山先生이 주장한 臍膀胱에 대한 연구, 대한형상의학회지, 2001  
 3) 《靈樞 · 本藏》에서는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라 하여 사람의 血 · 氣 · 精 · 神은 生命을 奉養하기 위한 것으로 生命 속 에 두루 퍼져 있다고 하였다. 즉 精氣神血이 生命의 根本이 된다.  
 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403, 7권 p. 77

없었다. 그런데 芝山은 精科는 圓形, 氣科는 方形, 神科는 逆三角形, 血科는 三角形(혹은 上中下の 長形)으로 형상화하였다.<sup>5)</sup> 그리고 精科는 圓形인 河圖로, 氣科는 方形인 洛書로, 神科는 逆三角形인 伏羲八卦로, 血科는 三角形인 文王八卦로 표시하여 精氣神血科의 형상을 河圖, 洛書, 伏羲八卦, 文王八卦의 모양과 배속시켰다.<sup>6)</sup>

芝山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無形한 精氣神血이 有形化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精氣神血科가 형성될 때 어째서 精科는 圓形이고, 氣科는 方形이고, 神科는 逆三角形이고, 血科는 三角形으로 되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精氣神血科가 어떻게 河圖, 洛書, 伏羲八卦, 文王八卦과 배속될 수 있는냐는 점이다. 넷째, 인체 중에서 왜 얼굴의 형으로 파악하느냐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필자는 芝山이 제시한 精氣神血科의 各形象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위에 제시한 순서에 따라 연구한 결과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발표하는 바이다.

## 본론 및 고찰

### 1. 精氣神血의 有形化

지금까지 일정한 형태가 없는 精氣神血을 有形한 얼굴의 形象으로 표현한 문헌은 볼 수 없었는데, 芝山은 人身의 基本 요소인 無形한 精氣神血을 種子論에 입각하여 4가지 얼굴형으로 나누어 精科는 圓形, 氣科는 方形, 神科는 逆三角形, 血科는 三角形(혹은 上中下の 長形)으로 有形化하였다. 이것에 대해 근거를 살펴보겠다.

形氣가 시작되는 단계에 대하여 《東醫寶鑑·形氣之始》에서는 天形이 나온 乾에는 太易, 太初, 太始, 太素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계를 未見氣-氣-形-質로 설명하고 있다.<sup>7)</sup> 이는 無形에서 有形의 단계로 形氣가 발생됨을 제시한 것이다.

또 《周易》에서는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는다 하였고,<sup>8)</sup> 韓<sup>10)</sup>은 생명체가 영원히 生生하기 위하여 만든 씨에는 八卦의 象과 五行의 數가 아울러 있는데, 八卦의 象은 無形에서 始하여 無形한 생명이 有形으로 化함을 象한 것이요, 五行의 數는 形의 발생에서 始하여 形의 속에 無形한 생명을 갈무리하여 생명체로 됨을 象한다<sup>11)</sup>고 하였다. 여기서 생명체의 形的인 발생 과정은 無形에서 有形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람과 만물의 生成에 대하여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天地合氣, 命之曰人”라 하였고,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故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 而化生萬物矣.”라 하였으며, 《東醫寶鑑·胎孕之始》에서는 “天地之精氣, 化萬物之形.

父之精氣爲魂 母之精氣爲魄”이라 하였다. 또 《素問·陰陽應象大論》<sup>12)</sup>에서는 天地의 氣味가 五臟을 생하고 내부 五臟이 외부의 筋, 血, 肉, 皮毛, 骨髓를 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天地父母의 氣가 상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芝山도 “天地가 自然을 낳고, 자연이 人間을 낳고, 인간이 風俗을 만들었다.”<sup>13)14)</sup>고 하여 문헌의 내용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요컨대 “氣合而有形”<sup>15)</sup>이라 하였듯이 만물의 생성이 天地의 氣가 상합하여 無形한 데서부터 有形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sup>16)</sup> 우주 자연의 이치에 부합된다. 따라서 精氣神血이 精氣神血科로 有形化된 것은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다.

### 2. 精氣神血科의 形象(圓形, 方形, 逆三角形, 三角形)

사람마다 形象이 각각 다른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따라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sup>17)</sup>으로 구분하였고, 主가 되는 五行性에 따라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sup>18)</sup>으로 나누었다. 또 四象醫學에서는 肺脾肝腎의 大小에 따라 太陰人, 少陰人, 太陽人, 少陽人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精氣神血이 有形化될 때 精氣神血 중 어느 것이 위주가 되느냐에 따라 外形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형태는 모두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하학적인 도형을 중심으로 단순화시켜보면 몇 가지로 요약된다.<sup>19)</sup> 이에 대해 《內經》에서는 天圓地方이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形은 하늘의 象인 圓形과 땅의 象인 方形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사람과 만물은 天地가 교합되어 태어나므로 이것들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나타내면 天의 圓形과 地의 方形이 혼합되어 생긴 어떠한 모양으로 될 것이다. 《周易入門》에서는 天地人 三才를 天圓, 地方, 人角으로 표시한다고<sup>20)</sup> 하였다. 여기서 人角의 形은 天地의 氣가 교합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形을 한 天垂象(∇)과 땅에서 올라가는 形을 한 地積象(△)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은 가로가 세로보다 긴 形은 없으므로 圓形, 方形, 逆三角形, 三角形, 上中下로 생긴 橢圓形과 長方形으로 요약된다.<sup>21)</sup> 이 중에서 芝山은 精科는 圓形, 氣科는 方形, 神科는 逆三角形, 血科는 三角形(혹은 上中下로 생긴 長形)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근거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추론해 보면 아래와 같다.

12) 《陰陽應象大論》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脾, …….,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 脾生肉, 肉生肺, …….,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皮毛生腎, …….,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腎生骨髓, 髓生肝.

13)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p. 42

1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5권 p. 2 p. 166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六節藏象論〉 p. 36

16) 韓長庚 著, 周易·正易, 삼과 곶, 서울, 2001, p. 14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通天〉 p. 302-303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 p. 274-276

19) 池圭鎬 著, 새로운 한의학 터득기(1), p. 332

20) 金秀吉, 尹相喆, 周易入門, p. 18

21) 결국 天의 圓形, 天의 圓形에서 변형된 橢圓形, 方形, 방형에서 변형된 긴 方形, 逆三角形, 三角形 등으로 압축된다. (필자주)

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403

6)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이숙 필사본)

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312 p. 404

8) 許浚, 東醫寶鑑, p. 72 乾鑿度云, 天形出乎, 乾有太易·太初·太始·太素, 夫太易者未見氣也, 太初者氣之始也, 太始者形之始也, 太素者質之始也.

9) 金碩鎮, 周易傳義大全譯解, p. 1404 〈繫辭傳〉

10) 韓長庚(1896-1967) : 함경남도 함흥출생, 易學原論을 저술, 礪溪隨錄을 번역함.

11) 韓長庚 著, 周易·正易, 삼과 곶, p. 549

1) 臟腑의 形象과 精氣神血科의 관계

精氣神血은 人體構成의 基本要素로서 生命活動을 유지하고 있는데, 血은 肝에, 神은 心에, 氣는 肺에, 精은 腎에 각각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肝心肺腎이 形을 이룬다.<sup>22)23)</sup> 이렇게 精氣神血이 肝心肺腎에 간직되어 있으므로 各 臟器의 形象은 곧 精氣神血이 형상화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精科·氣科·神科·血科의 형상은 精氣神血 중 무엇이 위주가 되었느냐에 따라 臟器의 形상대로 얼굴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心臟은 神을 간직하며 未開蓮花와 같다<sup>25)26)</sup>고 하였다. 이것을 추상화시키면 아래가 뾰족하고 위가 넓은 역삼각형 모양(▽)이 된다. 이것은 芝山이 주장한 神科의 形상과 일치한다.<sup>27)</sup> 둘째, 腎臟은 精을 간직하며 그 모양은 콩과 팔처럼 둥근 圓形(○)이 된다.<sup>28)29)</sup> 이것 역시 芝山이 주장한 精科의 形상과 일치한다.<sup>30)</sup> 셋째, 肺臟은 氣를 간직하며 사람의 어깨나 경쇠와 같다<sup>31)32)</sup>고 하였다. 이것을 추상화하여 단순화하면 方形(□)의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氣科의 形상과 일치한다.<sup>33)</sup> 넷째, 肝臟은 血을 간직하며 그 모양은 甲木이 퍼져 있는 모양<sup>34)</sup>으로 단순히 추상화하면 三角形(△)처럼 생겼고, 肝神의 모습은 호리박을 매단 것<sup>35)</sup> 같은 長形으로 생겼는데, 그 形象이 血科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自然人的 形象을 있는 그대로 본다<sup>36)</sup>는 芝山의 觀點과 일치된다. 이와 같이 精氣神血科의 얼굴 모양은 臟腑의 形象대로 取象했다고 추론된다.

2) 五行人의 얼굴형과 精氣神血科의 관계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五行氣의 偏差에 따라 體質을 구분했는데 木形人은 長面이고, 火形人은 脫面(銳面)이고, 土

形人은 圓面이고, 金形人은 方面이고, 水形人은 面不平 廣頤하다<sup>37)</sup>고 하였다.

또 芝山은 精氣神血科를 다음과 같이 五行에 배속하였다.<sup>38)</sup>

표 1. 精氣神血과 魚鳥走甲의 行配列

五行	精氣神血	魚鳥走甲
木	血科	走類
火	神科	鳥類
	土	
金	氣科	甲類
水	精科	魚類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血科(木)는 얼굴이 길고(面長), 神科(火)는 역삼각형이고(銳面), 氣科(金)는 얼굴이 네모진 것(方面)은 芝山의 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水形人과 精科의 形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內經》에서는 水形人은 面不平 廣頤, 土形人은 圓面이라고 했으나 芝山은 精科(水)는 얼굴이 둥글다(圓面)고 하였다. 하지만 水地說에<sup>39)</sup> 따르면 坤은 地이자 水로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즉 水와 土는 만물의 근원으로 같이 본 것이다. 실제로 腎水는 先天之本이고, 脾土는 後天之本으로 인체의 근원이 되며, 耳目口鼻에서 입은 土와 水로 보는 것<sup>40)</sup>으로도 논증할 수 있다. 따라서 芝山은 精科의 얼굴을 土形人의 圓面과 水形人의 面不平 廣頤를 포괄해서 圓面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요컨대 木形人은 血科, 火形人은 神科, 金形人은 氣科, 水土形人은 精科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精氣神血科는 《靈樞·陰陽二十五人》의 五行人의 얼굴형에서 取象했다고 본다. 이러한 추론은 五行人을 4가지 形상으로 나타내면서 다소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모순의 배제와 精氣神血科의 관계

五臟의 生成에 대하여 《素問·五藏生成》<sup>41)</sup>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문장의 순서가 心-肺-肝-脾-腎의 相剋 순으로 되어있으며, 心은 腎을, 肺는 心을, 肝은 肺를, 脾는 肝을, 腎은 脾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장 생성이 五行의 相剋 법칙으로 되어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계승하여 《東醫寶鑑·小兒·臟腑生成》<sup>42)</sup>에서는 五臟은 腎-脾-肝-肺-心 순으로 자기를 이기는 相剋의 법칙에 따라 생성된다고 하였고,

22) 《素問·調經論》에 “夫心藏神, 肺藏氣, 肝藏血, 脾藏肉, 腎藏志, 而此成形”이라고 하였고, 《靈樞·本神》에서는 “腎藏精, 精舍志”라고 하였다.  
 2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179 精氣神血이란 心肺肝腎을 滋養한다는 말이다. 精氣란 肺腎을 이야기 하고, 神血이란 心肝을 이야기한다.  
 24) 마음에 따라 氣가 움직이고 氣의 움직임에 따라 몸의 영향을 주어 形象이 변화하는 것처럼(神-氣-身), 精氣神血을 간직하는 臟器(肝心肺腎)의 形상은 곧 精氣神血이 움직인 자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디빌더가 대흉근을 강화하려고 마음을 먹고 반복적으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면 결국 대흉근이 발달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필자 주)  
 25) 許浚, 東醫寶鑑, p.141 【心形象】心形如未敷蓮花(內經註) ○心形如未開蓮花 上大下銳 倒懸着肺(類聚)  
 26) 許浚, 東醫寶鑑, p.94 〈人身神名〉. 心神丹元字守靈, …, 狀如未開垂蓮, 其色赤  
 2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403, 7권 p.82 “神科의 象은 火象이다. 火象이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逆三角形인데 이를 天垂象이라 한다.”  
 28) 許浚, 東醫寶鑑, p.146 【腎形象】腎藏有二 形如紅豆相並 而由附於腎筋 外有脂炭白表黑主藏精(內經) ○腎形如紅豆相並 如環曲貼腎腎膜 中裏白 外紫兩腎二系相通下行其上則與心系通而爲一所謂坎北瀉南水火相感者也(入門)  
 29) 許浚, 東醫寶鑑, p.94 〈人身神名〉. 腎神玄冥字育嬰, …, 狀如圓石, 其色黑  
 3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403  
 31) 許浚, 東醫寶鑑, p.145 【肺形象】肺之形 似人肩 二布葉 數小葉 中有二十四孔行列 以分布諸藏清濁之氣 主藏魄(內經註) ○肺形似人肩 又如鸞 懸於五藏之上而爲華蓋(入門)  
 32) 許浚, 東醫寶鑑, p.94 〈人身神名〉. 肺神皓華字虛成, …, 狀如華蓋覆腎, 其色紅白  
 3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403  
 34) 許浚, 東醫寶鑑, p.139 【肝形象】肝有二布葉 七小葉 如木甲折之象 各有支絡脉 居中以宣發陽和之氣 魂之官也(內經註) ○肝有二大葉 七小葉 左三葉右四葉分兩 如木甲折之多葉也(入門)  
 35) 許浚, 東醫寶鑑, p.94 〈人身神名〉肝神龍烟字含明, …, 狀如懸瓠, 其色青紫  
 3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403

37)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陰陽二十五人〉 p.274-276  
 3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권 p.32  
 39) 郭東烈 編著 醫易啓悟, p.118-119 水地說: 《內經註》에 따르면 “太一은 水의 존칭이다. 먼저 땅을 어머니로 삼은 후에 만물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說文解字》에 따르면 “五는 二를 따른 것으로서 陰陽이 天地間에서 縱橫으로 교차하는 것이다”고 했고, 《老子》는 “道는 一을 낳고, 一은 二를 낳는다.”고 한 二로서 太一이 天地陰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대표한다. “五”는 天地陰陽이 交合하여 萬物을 化生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土의 生數이고 土는 땅이다. 그러므로 “一”과 “五”는 萬事萬物의 根本이므로 水와 地는 곧 萬物의 根源이다. 《周易尚氏學》에서 “坤爲水”라고 하였는데 八卦에서도 坤은 地이자 水로 萬物의 根源으로 보았다.  
 4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1권 p.51  
 41) 《五藏生成》心之合脉也, 其榮色也, 其主腎也.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其主心也. 肝之合筋也, 其榮爪也, 其主肺也. 脾之合肉也, 其榮唇也, 其主肝也.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其主脾也.  
 42) 其次 腎生脾 脾生肝 肝生肺 肺生心 以生其勝己者 腎屬水 故五藏由是爲陰. 其次 心生小腸 小腸生大腸 大腸生膽 膽生胃 胃生膀胱 膀胱生三焦 以生其勝己者小腸屬火 六府由是爲陽. (醫鑑)

六腑는 心-小腸-大腸-膽-胃-膀胱-三焦 순으로 자기가 이기는 相剋의 법칙에 따라 생성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內經》과는 다소 다른 면을 보이고 있으나 五行의 相剋 법칙에 의해 五臟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芝山은 창조란 모순의 배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43)(44)(45)고 하였다. 즉 사물의 생성은 모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생성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精氣神血科에 대하여 芝山은 다음과 같이 五行을 배속하여 설명하였다.

○“精科는 水요, 氣科는 金이요, 神科는 火요, 血科는 木이다. 이때의 五行이 成立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水火木金의 해석은 다르다. 첫째, 水라는 개념은 軟하게 할 줄만 알고 굳힐 줄 모르기 때문에 萬物을 자라게 한다. 둘째, 火는 굳힐 줄만 알고 軟하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萬物이 節을 맺어 굳히게 한다. 셋째, 金은 흠어뜨릴 줄만 알고 모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濕을 불러들인다. 넷째, 木은 모을 줄만 알고 흠어뜨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風을 불러들인다.”(46)

여기서 芝山이 精科는 水, 氣科는 金, 神科는 火, 血科는 木로 배속한 五行은 生長化收藏하는 일반적인 五行의 속성이 아니라 《素問·藏氣法時論》에 나오는 酸收, 苦堅, 甘緩, 辛散, 鹹軟한 五味의 藥性を 五行과 배속한 것이다. 즉 木-收, 火-堅, 金-散, 水-軟로 배속한 것이다. 그리고 芝山은 모순을 배제하는 관계를 五行間의 相剋 관계로(47) 보지 않고 水火는 軟堅 작용으로, 金木은 收散 작용으로 대비하여 설명하였다.(48) 그래서 精科[水]는 軟하게 할 줄만 알고 굳힐 줄[堅] 모르고, 神科[火]는 굳힐 줄만[堅] 알고 軟하게 할 줄을 모르며, 氣科[金]는 흠트릴 줄만[散] 알고 모을 줄을[收] 모르고, 血科[木]는 모을 줄만[收] 알고 흠트릴 줄을[散]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芝山의 관점을 근거로 하여 精科·氣科·神科·血科의 형상과 특성을 정리하여 보고, 이러한 形象이 어떠한 모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1) 精科

精科에 대해 芝山이 주장한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해보면 다

4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1권 p. 178 “學生：矛盾을 排除하려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또 矛盾이 생기더라 이런 말이군요. 예를 들면 女子는 形이 衰하니까 그 矛盾을 排除하려고 形을 發達시켜서 形을 滋養하려 했는데 그로 因해서 또 食積이 잘 생기더라 하는 矛盾 말이죠.”  
 4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2권 168 “아이를 낳는 것도 創造였지만 生活 그 自體도 創造인 거야. 나는 그것을 矛盾의 排除라고 했어.”  
 4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307 “矛盾論의 立場은 息의 排除를 말한다. 즉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찼겠느냐? 女子는 男子의 息을 排除하고, 男子는 女子의 息을 排除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4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47) 鄒澍 지음,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下), p. 756 五行體用說을 주장한 鄒澍(1790-1844)는 《參同契》의 “五行相剋, 更爲父母”라는 설과 《素問·六微旨大論》의 “承乃制, 制則生化.” 설을 인용하여, “是故五行之體, 以剋爲用”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木·火·土·金·水 본체는 작용을 할 때 상극적인 五行 특징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즉 본초의 맛에 있어서 木의 酸味는 金의 收斂 작용을, 火의 苦味는 水의 응고저장 기능(堅藏)을, 土의 甘味는 木의 發生 작용을, 金의 辛味는 火의 發散 작용을, 水의 鹹味는 土의 緩和 작용을 발휘한다.  
 48) 韓東錫 著, 宇宙變化的原理, p. 80-81 木의 목적은 金을 만들려는 데 있고, 金의 목적은 木을 만들려는 데 있고, 水의 목적은 火를 만들려는 데 있고, 火의 목적은 水를 만들려는 데 있다. 즉 金木이 서로 대립하며 水火가 서로 仇讐관계에 놓여있지만 이것은 모순을 위한 대립이 아니고 발전과 통일을 위한 우주 본연의 必要剋이다.

음과 같다.

○精은 인체의 根本(精者, 身之本也<sup>49</sup>)으로 精의 濕은 水다. 腎은 精을 간직한다.(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sup>50</sup>)<sup>51</sup>)

○精의 濕은 水이므로 濕滯하면 精이 나쁜 것이다. 精이란 말은 津液이 凝集된 상태를 말하는데 凝集이 되려면 濕이 있어야 된다. 또한 精이란 것은 밑으로 下注하기 때문에 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精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濕으로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水로 보는 것이며, 各各이 적용되는 바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다. 濕이라는 것은 뭉치는 역할을 한다. 濕이 없으면 뭉치지를 못하는 것이다.<sup>52</sup>

○精科는 水요, ..., 水라는 개념은 軟하게 할 줄만 알고 굳힐 줄 모르기 때문에 萬物을 자라게 한다.<sup>53</sup>

○精科는 얼굴이 둥글어 운행이 잘된다. 돌기만 하고 정지할 줄 모른다.<sup>54</sup>

○精이라는 것은 둥그니까 뭉쳐야 되는데 淸하면 病이 된다. 그래서 精科가 糖尿가 오기 쉽다.<sup>55</sup>

○精科는 氣虛濕痰한 形이므로<sup>56</sup> 精科는 氣가 不足하기 쉽다.<sup>57</sup>

○精이란 水形을 말한다. 精은 軟하게 할 줄만 알고 굳힐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精科의 사람은 遺精·失精·滑脫·夢泄 등의 精이 漏泄되는 症이 많이 나타난다.<sup>58</sup>

○精科는 精이 漏泄하기 쉬운 체질이다. 왜냐하면 水는 潤下하는 性質이기 때문이다.<sup>59</sup>

○精科에 속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서 病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精이 새어서 運行이 안되는 것이다.<sup>60</sup>

이상을 종합하면 精이란 人身의 根本으로 軟하게 할 줄만 알고 굳힐 줄[堅]을 모르며, 精科는 얼굴이 둥글다. 실제로 精科는 軟하고 氣虛濕痰한 속성 때문에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圓形을 갖춘 사물은 動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精科는 이렇게 軟하게 할 줄만 알고 굳힐 줄을 모르며, 움직이기 싫어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둥근 圓形으로 만들어 잘 凝集하고 動하도록 成形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精이 너무 軟化되어 固精이 안되면 遺精·失精·滑脫·夢泄 등의 精이 漏泄되는 증이 나타난다. 그러나 너무 굳혀지면 精이 마르게 될 것이다.

(2) 氣科

氣科에 대해 芝山이 주장한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氣는 呼吸과 律動이다. 呼出吸納의 根本이다. 氣란 爽한 것을 풀어주고 흠어뜨릴 줄만 알고 모을 줄을 모른다. 氣가 鬱하면 浮腫·脹滿·積聚가 온다.<sup>61</sup>)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金匱真言論》 p. 168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古天真論》 p. 11  
 51)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52) 지산선생임상학특강 2권, p. 193  
 5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54)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5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403  
 5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79  
 5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권, p. 126  
 5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79  
 59)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24  
 6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2권, p. 195

○學生 : 氣科라는 말은 肺를 지칭해서 말한 말입니까?  
 芝山先生 : 그렇다. 肺라고 말하지만 肺의 機能은 멎힌 것을 풀어 주고 全身에 흠어뜨리며 모을 줄 모르는 흠을 가지고 있다.<sup>62)</sup>  
 ○肺는 멎힌 것을 풀어주고 흠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氣科의 특징이다.<sup>63)</sup>  
 ○氣科는 金이요, …, 셋째, 金은 흠어뜨릴 줄만 알고 모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濕을 불러들인다.<sup>64)</sup>  
 ○氣는 精에서 생긴다.(精盈則氣盛<sup>65)</sup>)<sup>66)</sup>  
 ○氣科는 얼굴이 모가 나서 돌 줄을 모른다. 滯해서 병이 온다.<sup>67)</sup>  
 ○氣科는 方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滯해서 病이 온다.<sup>68)</sup>  
 ○氣科는 얼굴이 각지고 광대뼈 관골이 크다.<sup>69)</sup>  
 ○氣科는 흠어뜨리지 못하여 멎혀서 病이 온다.<sup>70)</sup>  
 ○氣科는 氣가 不足하거나 氣가 멎혀서 흠어뜨리지 못하여 發病하므로 補氣와 行氣를 한다.<sup>71)</sup>  
 ○氣科는 肺가 멎힌 것을 풀어주고 흠어뜨리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氣科는 血이 不足한 것이고, 血科는 氣가 不足한 것을 말한다.<sup>72)</sup>  
 ○氣科의 基本 病理은 氣鬱이니 行氣가 우선이다.<sup>73)</sup>  
 ○氣科는 氣病이 온다. 즉 鬱滯가 되어서 病이 되고, 氣가 運行이 안되서 病이 되고, 津液이 津液화되지 못해서 病이 되고, 멎힌 것을 풀어주지 못해서 病이 된다. 그러므로 積聚·疝瘕·浮腫·脹滿·全身刺痛 等の 어려운 雜病이 생긴다.<sup>74)</sup> 그리고 氣科는 七情, 七氣로 인해서 鬻속에 五積과 六聚와 疝瘕과 癥瘕와 같은 塊가 생긴다.<sup>75)</sup>  
 ○氣鬱로 온 것이니 氣海穴 刺針한 후에 藥을 쓴다.<sup>76)</sup>  
 ○氣科로 생긴 사람은 <氣門>에서 藥을 찾아 쓴다.<sup>77)</sup>  
 이상을 종합하면 氣란 끊임없이 율동하면서 멎힌 것을 풀어 주고 흠트릴 줄만 알고 모을 줄 모르는 성질이 있으며, 氣科는 얼굴이 각진 形이다. 실제로 氣科는 氣의 속성 때문에 부지런히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方형을 갖춘 사물은 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氣科는 이렇게 氣가 흠트리기만 하고 모을 줄 모르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靜하게 하는 方형으로 成形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氣가 方형의 속성에 따라 너무 靜하게 되면 氣滯가 되어 浮腫·脹滿·積聚·疝瘕·全身刺痛 등의 증이 생기고, 너

무 흠어지면 氣不足이 생기게 될 것이다.  
 (3) 神科  
 神科에 대해 芝山이 주장한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神은 우리 몸의 주인이다.(神爲一身之主)<sup>78)</sup> 心은 一身의 主要, 淸淨의 府가 되는 것이며 밖에는 胞絡이 있어서 그물처럼 얽혀 있고, 그 가운데 精華가 모여 있는 것을 神이라 한다. 神은 陰陽을 通하고 섬세한 것까지 살피서 조금도 문란함이 없다.<sup>79)</sup> 心이 高요하면 神明과 통하여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 수 있는데, ……., 心은 물과 같아서 오래 두면 가라앉아 밑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靈明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心을 高요히 하면 元기가 든든해져 온갖 병이 생기지 않으므로 오래 살 수 있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떠올라 神이 밖으로 달려나가면, 氣는 안에서 흠어지고 血은 氣를 따라 흘러 榮衛가 뒤섞이므로 온갖 병이 공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心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sup>80)</sup>  
 ○神은 精氣가 교합하여 생긴다.<sup>81)</sup>(神者, 精氣之化成也<sup>82)</sup>  
 ○神科는 火요, ……., 둘째 火는 굳힐 줄만 알고 軟하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萬物이 節을 맺어 굳히게 한다.<sup>83)</sup>  
 ○神科의 象은 火象이다. 火象이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逆三角形인데 이를 天垂象이라 한다. 왜냐하면 위는 하늘이라 흠어지기 쉽고 아래는 땅이라 모이기 때문이다.<sup>84)</sup>  
 ○芝山先生 : 種子의 형태를 이러한 모양으로[ ○·□(◇)·▽·△]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各各 精科·氣科·神科·血科라고 命名하지! ……., 神科는 鬱하기 쉽다.<sup>85)</sup>  
 ○神科는 下體가 약하다. 下體는 水이기 때문에 水가 말라서 이러한 병이 생긴 것이므로 滋陰을 위주로 해야 한다.<sup>86)</sup>  
 ○神科는 陰이 不足하고 火가 盛하여 發病하므로 滋陰降火한다.<sup>87)</sup>  
 ○생긴 대로 病이 온다고 볼 때 神科는 滋陰시키고 降火해야 하므로 <火門>의 滋陰降火湯을 투여한다.<sup>88)</sup>  
 ○神科는 火가 盛하여 陰이 不足하여 제어하지 못해서 病이 온다.<sup>89)</sup>  
 ○만일 사람이 神科로 생겼다면 藥을 <神門>에서 찾아 쓴다.<sup>90)</sup>  
 이상을 종합하면 神이란 우리 몸의 주인으로 아주 섬세한 것까지 살피면서도 혼란함이 없는 성질이 있고, 神科는 얼굴이 逆三角形인 天垂象이다. 실제로 神科는 긴장을 잘 하여[緊] 七情鬱結이

61)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80  
 62) 지산선생임상학특강 6권, p. 310  
 6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6권, p. 139  
 6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65) 許浚, 東醫寶鑑, p. 81  
 66) 지산선생 구공론 강의록 중에서  
 67)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6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403  
 69)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권, p. 318  
 7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71)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432  
 72)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68  
 7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5권, p. 267  
 7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6권, p. 209  
 7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6권, p. 363  
 7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권, p. 213  
 7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1권, p. 245

78) 許浚, 東醫寶鑑, p. 94  
 79)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82  
 80) 許浚, 東醫寶鑑, p. 94 凡七情六慾之生於心皆然。故曰。心靜可以通乎神明。事未至而先知。是不出戶知天下。不窺牖見天道也。蓋心如水之不撓。久而澄清。洞見其底。是謂靈明。宜乎靜可以固元氣。則萬病不生。故能長久。若一念既萌。神馳於外。氣散於內。血隨氣行。榮衛昏亂。百病相攻。皆因心而生也。  
 81) 지산선생 구공론 강의록 중에서  
 82) 許浚, 東醫寶鑑, p. 95  
 8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8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82  
 8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403  
 8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409  
 8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388  
 8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82  
 89)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9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1권, p. 308

많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軟] 事理를 잘 판단하는 총명함이 있다.

神科는 이렇게 神이 굳히려고만 하는 火의 속성대로 지나치게 긴장하여 七情이 鬱結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는 天垂象으로 成形한 것으로 이해된다. 天垂象은 땅을 기준으로 보면 하늘로 퍼져 불안정하게 보지만 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하늘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기세가 된다. 따라서 神科는 火盛陰虛하여 下體가 弱한 증과 너무 집착하여 七情鬱結이 잘 생긴다.

(4) 血科

血科에 대해 芝山이 주장한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血이란 中焦에서 받은 氣가 붉게 변한 것이 血이다. 또 穀氣가 胃에 들어오면 脈道가 통하고, 水氣가 經脈으로 들어가면 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榮氣란 收斂의 精氣다. 이것은 五臟을 조화롭게 하고, 六腑로 흩어지며, 經脈으로 들어간다.<sup>91)</sup>

○血이란 精氣神이 교합하여 생긴다.<sup>92)</sup>

○血科는 血이 形을 養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온 病이다. 血은 榮氣가 되어 몸속을 영양한다. …… , 榮氣가 부족하면 맥이 澁해지고, 충분하면 實해진다. 매일 음식으로 자양하기 때문에 양이 생기고 음식 자라나, 津液을 붉게 변화시켜 血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가 盛하면 形體가 盛하고 피가 弱하면 形體가 衰하는 法이다.<sup>93)</sup>

○血科는 木이다. …… , 넷째 木은 모을 줄만 알고 흩어뜨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風을 불러들인다.<sup>94)</sup>

○芝山先生 : 種子의 형태를 이러한 모양으로[ ○ · □(◇) · ▽ · △ ] 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 精科 · 氣科 · 神科 · 血科라고 命名하지! …… , 血科는 未包하여, 즉 새기 쉽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精血로 되어 있는 사람을 膀胱體, 神氣로 되어 있는 사람을 膽體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氣科와 神科가 합쳐지는 경우가 많고 精科와 血科가 합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sup>95)</sup>

○얼굴이 길면 血이 나쁘다. 그래서 血科라고 한다.<sup>96)</sup>

○血科는 얼굴이 길다. 血이 부족하면 입이 튀어나오는데 입이 나왔다는 것은 聚集本능이 발달되었다는 의미이다.<sup>97)</sup>

○血科는 血病이 오기 쉽다.<sup>98)</sup>

○血은 未包해서 병이 온다.<sup>99)</sup>

○血科는 包하지 못해서 病이 온다.<sup>100)</sup>

○血科는 血을 包하지 못하여 發病하므로 補血을 해야 한다.<sup>101)</sup>

이상을 종합하면 血이란 脈 속에 있으면서 形을 滋養하는 성질이 있으며 모을 줄만 알고 흩트릴 줄을 모른다. 血科는 얼굴이 삼각형이나 上中下로 긴 形이다. 실제로 血科는 滋養하는 血

의 속성 때문에 순하고 자상한 경향이 있다.

血科는 이렇게 血이 모으려고만 하고 흩트릴 줄 모르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木의 升發하는 기세로 조화를 맞추는 地積象으로 成形한 것<sup>102)</sup>으로 보인다. 地積象인 三角形의 사물은 안정적이고 위로 오르는 기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血이 地積象의 속성에 따라 너무 아래로 뭉치게 되면 瘀血과 下血이 생기고, 너무 升發하게 되면 出血이 되는 血病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술한 모순의 배제와 精氣神血科의 관계를 요약하면 사물의 생성은 모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精科는 軟化만 되어 활동하기 싫어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잘 움직이는 둥근 圓形으로 成形한 것이며, 氣科는 흩트리지만 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靜하게 하는 方形으로 成形한 것이다. 또 神科는 마음을 굳어 지나치게 긴장하기만 七情鬱結의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는 天垂象으로 成形한 것이며, 血科는 血이 모으려고만 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木의 升發力으로 조화를 맞추는 地積象으로 成形한 것으로 보인다.

3. 精氣神血科와 河圖, 洛書, 伏羲八卦, 文王八卦의 배속

芝山은 圓形인 精科는 河圖, 方形인 氣科는 洛書, 逆三角形인 神科는 伏羲八卦, 三角形(혹은 上中下の 長形)인 血科는 文王八卦에 배속하였다. 그렇다면 인체의 기본요소인 精氣神血을 일괄형으로 나타낸 精氣神血科와 天地自然의 이치를 나타내는 河圖 · 洛書 · 伏羲八卦 · 文王八卦와 어떤 면이 어떻게 상통하는지를 논증해야 할 것이다.

1) 精科와 河圖의 관계

河圖는 伏羲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머리는 龍이고 몸은 말의 形象을 한 신비로운 짐승이 河水에서 출현하였는데, 그 등에 있는 55개의 점(흰점 25개와 검은점 30개)이 天地創造와 萬物生成의 이치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 신비한 그림이다.<sup>103)</sup>

河圖는 萬物의 生成原理를 나타낸 것으로 生數와 成數가 內外로 구성되며 五行의 相生 原理가 들어 있으므로 圓形으로 표현된다.<sup>104)105)</sup>

河圖는 天의 象인<sup>106)</sup> 圓象으로 動을 의미한다.<sup>107)</sup> 즉 河圖는 圓形으로 하늘의 運行을 표상한 것이다.<sup>108)</sup> 그리고 河圖는 體圓用方인데, 河圖의 體圓한 것은 四角이 없음이요, 用方함은 奇偶가 同處한 까닭이다.<sup>10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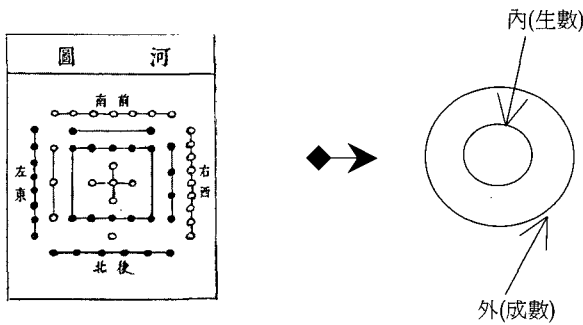
芝山은 “河圖는 萬物 生成의 原理로서 물에서 創造되는 것을 말한다. …… , 河圖는 相生으로 사람으로 보면 運行作用을 말한다.”<sup>110)</sup> 라고 하였다. 또 精科는 水요<sup>111)</sup> 얼굴이 둥근 사람으로

91) 許濂, 東醫寶鑑, p. 105  
 92) 지산선생 구공론 강의록 중에서  
 9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82  
 9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9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403  
 9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2권, p. 68  
 9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1권, p. 109  
 9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2권, p. 55  
 99)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10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101)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432

102) 血의 모으려는 작용은 일정한 점성을 가지고 血管內를 흐르는 것을 뜻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未包하여 出血이 생기므로 氣의 統攝 작용을 받아서 위로 推動하는 地積象을 갖추어 矛盾을 排除하는 방향으로 成形한 것이다. (필자주)  
 103) 金秀吉, 尹相喆 공역, 河洛理數(上), p. 38  
 10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권, p. 219  
 105)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 123  
 106) 姜孝信, 弘益桓檀經, p. 62  
 107) 李正來 著, 醫易同源(上), p. 98  
 108) 金秀吉, 尹相喆 공역, 河洛理數(上), p. 42  
 109) 姜天奉, 啓蒙傳疑研究, p. 10

河圖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sup>112)</sup> 하였다.

河圖의<sup>113)</sup> 이치를 형상화하면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이상에서 形象的으로 精科도 圓形이고 河圖의 象도 圓形이다. 機能的으로 精科는 精을 위주로 하는데 精은 인체의 근본으로 생명을 탄생의 근본이 되고, 河圖는 천지창조와 만물생성의 이치를 담고 있는 易의 근본이다. 또 精科는 둥그라서 계속 動하려 하는 반면 氣虛濕痰하여 靜하려고 하는 것은 河圖의 體圓用方의 원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精科와 河圖는 형상과 기능면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芝山이 精科를 河圖에 배속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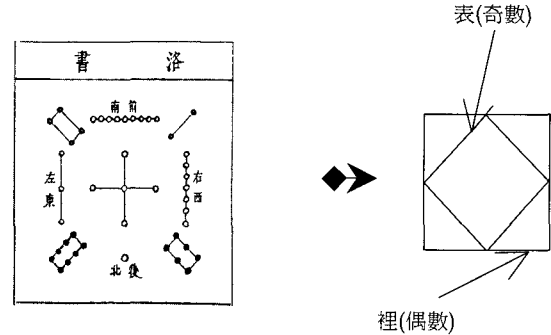
### 2) 氣科와 洛書의 관계

洛書는 夏禹氏가 舜임금의 명을 받아 9년동안 治水할 당시에 신령스런 거북이가[神龜] 洛水에서 출현하였으며, 그 등에 나타난 45개로 된 점의 무늬에서 신묘한 이치를 깨달아 治水 사업에 성공하였다고 전한다.<sup>114)</sup> 이것을 洛書라 하는 동시에 洪範九疇라고도 한다.<sup>115)</sup> 洛書는 天地萬物의 成形원리로 五行의 相剋原理<sup>116)</sup>가 들어 있는데, 홀수는 四正方, 짝수는 四間方에 위치하여 表裏의 方形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17)118)</sup> 또 洛書는 中央과 八方을 합쳐 九宮이 되며<sup>119)</sup>, 한 形象의 理를 표시하는데 上下左右나 前後表裏로 보아야 한다.<sup>120)</sup>

洛書는 地의 象인<sup>121)</sup> 方象으로 靜을 의미한다.<sup>122)</sup> 즉 洛書는 方形으로 땅의 운행을 표상한 것이다.<sup>123)</sup> 그리고 洛書는 體方用圓한데, 體方한 것은 四角이 있음이요, 用圓함은 奇偶가 獨行하는 所以이다.<sup>124)</sup>

芝山은 “洛書는 矛盾의 排除를 말한 것이다. 그것을 相剋의 으로 본 것이다.”<sup>125)</sup> 라고 하였고, 洛書는 成形原理라고 하였

다.<sup>126)</sup> 또 얼굴이 모난 氣科는 洛書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sup>127)</sup> 하였고, 氣科는 表裏爲主로 보라고<sup>128)</sup> 하였다. 洛書의<sup>129)</sup> 이치를 형상화하면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이상에서 形象的으로 氣科도 方形이고 洛書의 象도 方形이 된다. 機能的으로 氣科는 모가 나서 계속 靜하려 하는 반면 氣를 끊임없이 흐트리려고 하는 것은 洛書의 體方用圓의 원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氣科와 洛書는 형상과 기능면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芝山이 氣科를 洛書에 배속한 것이라고 본다.

### 3) 神科와 伏羲八卦의 관계

伏羲八卦는 伏羲氏가 天下를 다스릴 때 우러러서는 하늘에서 形象을 관찰하였고, 굽어서는 땅에서 法則을 관찰하였으며, 새와 짐승의 모양과 땅의 알맞음을 살펴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여 비로소 八卦를 지어 神明의 德에 통하고 만물의 상태를 분류하였는데,<sup>130)</sup> 이는 河圖를 보고 만든 것이며,<sup>131)</sup> 先天八卦라고도 한다.

伏羲八卦方位圖에서 四正方에는 천문적인 현상인 天地가 定位하고 日月이 運行하는 象이 나타나 있고, 四間方에는 지리적인 표현인 山澤이 交氣하며 雷風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sup>132)</sup> 이렇게 伏羲八卦는 河圖를 보고 만든 것이지만 천문적 현상을 나타내는 河圖와 지리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洛書의 이치가 교합되어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洛書와도 하나의 이치로 상통된다.<sup>133)</sup> 따라서 伏羲八卦는 天地의 氣가 交合하여 생기는 人의 象인 三角<sup>134)</sup>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伏羲八卦順次圖는 밑으로부터 太極이 兩儀를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는 象으로 逆三角形으로 되어있다.

芝山은 精氣가 交合되어 神이 생긴다<sup>135)</sup>고 하였고, 얼굴이 逆三角形인 神科는 伏羲八卦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또 神科는 左右로 보라고 하였다.<sup>136)</sup>

伏羲八卦를<sup>137)</sup> 형상화하면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11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권, p. 219

111)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권 p. 280

112)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113)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p. 957

114) 金秀吉, 尹相喆 공역, 河洛理數(上), p. 41

115) 李正來 著, 醫易同源(上), p. 94

116) 金秀吉, 尹相喆 공역, 河洛理數(上), p. 44

11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권, p. 219

118)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 123

119) 韓長庚 著, 周易·正易, p. 564

120)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 124

121) 姜孝信, 弘益檀經, p. 62

122) 李正來 著, 醫易同源(上), p. 98

123) 金秀吉, 尹相喆 공역, 河洛理數(上), p. 42

124) 姜天奉, 啓蒙傳疑研究, p. 11

12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권, p. 219

126)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127)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12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 314

129)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p. 958

130) 朱熹 著, 김상섭 해설, 易學啓蒙, p. 89

131) 李正來 著, 醫易同源(上), p.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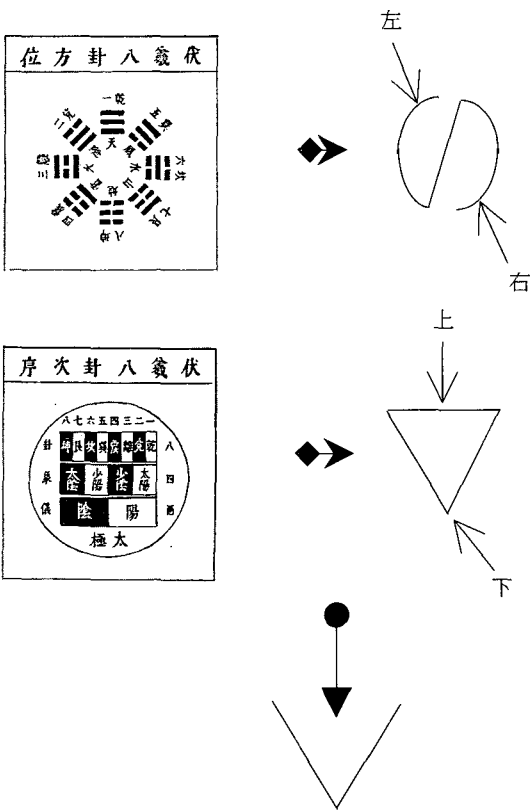
132)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 179

133) 李正來 著, 醫易同源(上), p. 103

134) 金秀吉, 尹相喆, 周易入門, p. 18

135) 許浚, 東醫寶鑑, p. 95 神者, 精氣之化成也.

136)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이상에서 形象的으로 神科도 逆三角形이고 伏羲八卦도 逆三角形이 된다. 機能的으로 神은 精氣가 교합하여 생긴 것인데, 伏羲八卦는 河圖와 洛書의 이치가 교합되어 있다는 것도 일치한다. 따라서 神科와 伏羲八卦는 형상과 기능면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芝山이 神科를 伏羲八卦에 배속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4) 血科와 文王八卦의 관계

文王八卦는 周代의 文王이 伏羲의 先天八卦를 이어 作한 것이므로 後天八卦라고도 한다.<sup>138)</sup> 따라서 제일 후에 지어진 文王八卦는 河圖·洛書·伏羲八卦의 이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文王八卦方位圖는 內情이므로 시간적인 春夏秋冬, 四時, 寒暑의 성질로 배치된 것이나 伏羲八卦는 外象으로 되었기 때문에 乾上, 坤下라는 공간적 위치로 배치된 것이다. 그래서 文王八卦는 남방에 離卦가 있고, 북방에는 坎卦가 있는 것이다.<sup>139)</sup> 또 동방에 震卦는 春節이 되면 만물의 生氣가 발동하여 다 싹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다. 서방에 兌卦는 秋節에 만물이 그 生氣를 吸收集結하여 결실하는 뜻으로 서방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sup>1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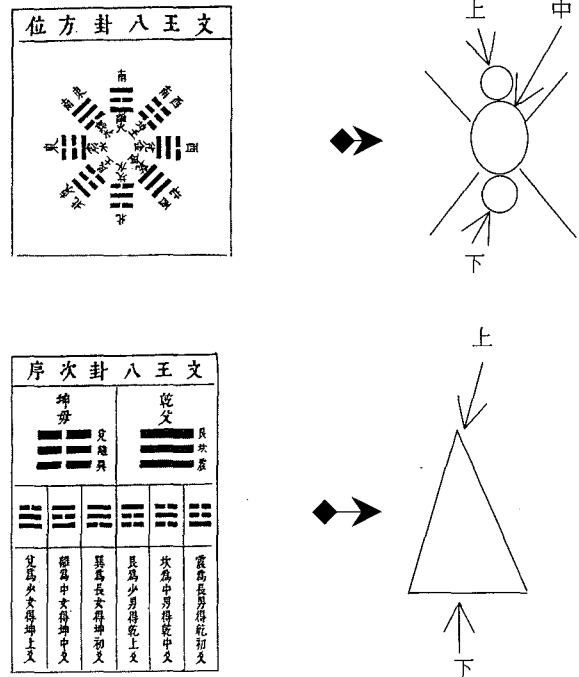
한편, 《靈樞·九鍼論》에서는 身形이 九野에 應하는 관계에 대하여 左足은 立春, 左脇은 春分, 左手는 立夏, 膺喉首頭는 夏至, 右手는 立秋, 右脇은 秋分, 腰尻下竅는 冬至, 六府膈下三藏은 中州에 應한다<sup>141)</sup>고 하였다. 이는 洛書의 九宮의 원리에 文王八卦의

시간성을 상합하여 인체의 부위를 배속한 것인데, 九宮으로 보면 四正方과 中央은 인체의 上中下를, 四間方은 左右手足을 표상한다. 文王八卦로 보면 上의 離卦는 頭, 下의 坎卦는 尾, 左右의 震兌卦와 中州는 胴體를 이루고 있으며, 西北間方의 乾卦는 右足, 西南間方의 坤卦는 右手, 東南間方의 巽卦는 左手, 東北間方의 艮卦는 左足로 사지를 이루어 인체의 형을 총체적으로 표상하였다.<sup>142)</sup>

文王八卦次序圖에서 老陽인 乾은 天의 象이므로 父의 형상이고 老陰인 坤은 地의 象이므로 母의 형상이며, 이 父母가 되는 乾과 坤이 交하여 子女를 生한다.<sup>143)</sup> 이것은 乾坤이 交合하여 震坎艮의 三男과 巽離兌의 三女로 分파되는 三角形으로 되어있으며, 父母가 子女를 낳는 血統의 關係를 의미한다.

芝山은 “精은 人身의 근본인데, 精이 氣를 낳고, 精氣가 神을 낳고, 精氣神이 血을 낳았다.”<sup>144)</sup>고 하였다. 또 얼굴이 三角形이거나 上中下로 長形인 血科는 文王八卦의 원리에 따른 것이며, 文王八卦는 男女論이라고 하였다.<sup>145)</sup>

文王八卦를<sup>146)</sup> 형상화하면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이상에서 形象的으로 血科는 地積象이거나 上中下の 長面이고 文王八卦도 三角形과 上中下の 形象이 된다. 機能的으로 血은 精氣神이 교합하여 생긴 것인데, 文王八卦도 河圖, 洛書, 伏羲八卦의 이치가 교합되어 있다는 것이 일치한다. 따라서 血科와 文王八卦는 형상과 기능면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芝山이 血

137)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p. 958-959

138) 李正來 著, 醫易同源(上), p. 134

139)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 183

140)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 184

1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九鍼論> p. 332 黃帝曰: 願聞身形, 應九野, 奈何. 岐伯曰: 請言身形之應九野也, 左足應立春, 其日戊寅己丑. 左脇應春分, 其日乙卯. 左手應立夏, 其日戊辰己巳. 膺喉首頭應夏至, 其日丙午. 右手應立秋, 其日戊申己未. 右脇應秋分, 其日辛酉. 右足應立冬, 其

日戊戌己亥. 腰尻下竅應冬至, 其日壬子. 六府膈下三藏應中州, 其大禁, 大禁太一所在之日, 及諸戊己. 凡此九者, 善候八正所在之處, 所主左右上下, 身體有癰腫者, 欲治之, 無以其所直之日潰治之, 是謂天忌日也.

142) 李淑 編, 韓方脾系內科學, p. 52

143) 李正來 著, 醫易同源(上), p. 134

144)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145) 지산선생 형상의학 강의록 중에서

146)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p. 960







科를 文王八卦에 배속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논술한 精氣神血科와 河圖, 洛書, 伏羲八卦, 文王八卦와의 배속 관계를 요약하면 圓形인 精科는 河圖, 方形인 氣科는 洛書, 天垂象인 神科는 伏羲八卦順次圖, 地積象인 血科는 文王八卦順次圖와 上中下の 長形인 血科는 文王八卦方位圖의 形象과 일치한다. 그래서 芑山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나타내는 河圖, 洛書, 伏羲八卦, 文王八卦의 易論을 小宇宙인 사람의 形象 분류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芑山의 이러한 업적은 한의학의 진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서 논술한 精氣神血科의 形象, 五臟의 배속, 生理, 病理 및 河圖·洛書·伏羲八卦·文王八卦에 대한 내용을 총괄하여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精氣神血의 특징

	精科	氣科	神科	血科
	圓形	方形	天垂象	地積象·鷄卵形
얼굴형				
河洛伏文	河圖	洛書	伏羲八卦	文王八卦
五臟	腎藏精	肺藏氣	心藏神	肝藏血
生理	凝集	發散	安定	包藏
病理	精漏泄 精不足	氣滯 氣虛	七情鬱結 痰火	血未包則出血 瘀血

4. 精氣神血科를 얼굴형으로 보는 이유

芑山은 精氣神血科의 形象을 얼굴에서 파악한다고 하였다. 藏象論에 따르면 몸속에 내재한 臟器들의 상태는 반드시 얼굴이나 體外로 그 발현상은 色과 形象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육체와 정신의 변화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얼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形色을 통하여 觀形察色을 하여 질병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形에 대해서는 《內經》이나 《東醫寶鑑》의 여러 조문에서 얼굴에 臟腑와 인체부위를 상응시켜 진단하였다.<sup>147)148)149)</sup> 色에 대해서는 五臟, 六腑, 肢節의 病變이 얼굴에 반영되는 위치 및 五色과 배합 관계를 설명하였으며<sup>150)</sup>, 面部的 色澤 변화에 근거하

여 질병을 판단하고, 질병의 전변 예후 등을 추론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sup>151)</sup> 그리고 모든 手足三陽經은 머리에서 모두 交會하므로 전신의 어느 부위와도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얼굴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집약되어 있으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은 전신이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신호등인 셈이다.<sup>152)</sup>

한편, 芑山先生은 精氣神血科는 人身의 種子인데 얼굴의 形으로 나타난다<sup>153)</sup>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논술한 것처럼 얼굴 속에 인체의 모든 기관이 집약되어 있는 상태가 마치 種子 속에 그 種의 모든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이치와 같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얼굴은 全身의 모든 臟腑經絡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체의 모든 상태가 반영되는 곳인 점을 감안할 때 식물의 種子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얼굴에서 精氣神血科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의 模型을 가지고 精氣神血科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결론

芑山이 주장한 精氣神血科의 形象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精氣神血이 精氣神血科로 有形화된 것은 無形한 데서부터 有形한 단계로 만물이 생성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芑山이 精氣神血科를 각각 圓形, 方形, 逆三角形, 三角形 혹은 上中下の 長形으로 본 것은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臟腑의 形象대로 取象하였다. 즉 精科는 腎臟, 氣科는 肺臟, 神科는 心臟, 血科는 肝臟의 形象대로 보았다. 둘째, 《靈樞·陰陽二十五人》의 五行人의 形象에서 取象하였다. 즉 精科는 水土形人, 氣科는 金形人, 神科는 火形人, 血科는 木形人의 형상에서 유추하였다. 셋째, 모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精氣神血科의 形象을 取象하였다. 즉 精科는 활동하기 싫어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잘 움직이는 둥근 圓形으로, 氣科는 훌트리기만 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靜하게 하는 方形으로, 神科는 지나치게 七情鬱結이 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天垂象으로, 血科는 모으려고만 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升發力로 조화를 맞추는 地積象으로 成形한 것으로 보인다. 芑山이 精氣神血科에 배속한 河圖, 洛書, 伏羲八卦, 文王八卦에서 圓形인 精科는 河圖, 方形인 氣科는 洛書, 天垂象인 神科는 伏羲八卦順次圖, 地積象인 血科는 文王八卦順次圖와 上中下の 長形인 血科는 文王八卦方位圖의 形象과 일치한다. 얼굴에서 精氣神血科를 보는 이유는 얼굴이 식물의 종자와 같이 全身의 모든 臟腑經絡과 연결되어 있어 인체의 모든 상태가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얼굴의 模型을 가지고 精氣神血科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1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師傳〉 p.165 黃帝曰: 五臟之氣, 關於面者, 余已知之矣, 以肢節而知之, 奈何. 岐伯曰: 五臟六腑者, 肺爲之蓋, 巨肩陷咽, 候見其外. 黃帝曰: 善. 岐伯曰: 五臟六腑, 心爲之主, 缺盆爲之道, 胎骨有餘, 以候骨易肝. 黃帝曰: 善. 岐伯曰: 肝者, 主爲將, 使之候外, 欲知堅固, 視目小大. 黃帝曰: 善. 岐伯曰: 脾者, 主爲衛, 使之迎糧, 視唇舌好惡, 以知吉凶. 黃帝曰: 善. 岐伯曰: 腎者, 主爲外, 使之遠聽, 視耳好惡, 以知其性. 黃帝曰: 善. 願聞六腑之候. 岐伯曰: 六腑者, 胃爲之海, 廣骸大頸張胸, 五穀乃容. 鼻隧以長, 以候大腸. 脣厚, 人中長, 以候小腸. 目下果大, 其膽乃橫. 鼻孔在外, 膀胱漏泄. 鼻柱中央起, 三焦乃約. 此所以候六腑者也.

148) 權健赫, 編輯黃帝內經, p.365 五氣者, 五臟之使也, 五時之副也. 願聞其五使當安出. 岐伯曰: 五臟者, 五臟之副也.

149) 權健赫, 編輯黃帝內經, p.366-367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唇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 黃帝曰: 以官何候. 岐伯曰: 以候五臟. 故肺病者, 喘息鼻脹. 肝病者, 青青. 脾病者, 唇黃. 心病者, 舌卷短, 頰赤. 腎病者, 頰與頰黑.

150) 權健赫, 編輯黃帝內經 《靈樞·五色》 p.395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闕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臍也. 右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挾大腸者, 腎也. 當腎者, 臍也. 面王以上者, 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頰者, 肩也. 頰

後者, 腎也. 臂下者, 手也. 目內眥上者, 膈乳也. 挾繩而上者, 背也. 循牙車以下者, 股也. 中央者, 膝也. 膝以下者, 脛也. 當脛以下者, 足也. 巨分者, 股裏也. 巨髀者, 膝腋也. 此五臟六腑肢節之部也. 各有部分.

1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五藏生成〉 p.39-40

152) 趙成泰, 생김대로 병이 온다, 명상, 1998 p.86

15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권, p.403

이상은 芝山の 강의록과 저술된 책을 근거로 추론한 결과이며, 芝山の 표현하려고 한 진정한 의도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지산출판사, 서울, 1996-1999.
2. 許浚 著,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95.
3.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지산출판사, 서울, 2003.
4. 芝山先生 形象醫學 및 九宮論 강의록 (이숙 및 여러 제자들의 필사본).
5. 李淑 編, 한방비계내과학,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1989.
6. 趙成泰, 생간대로 병이 온다, 명상, 서울, 1998.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9. 權健赫, 編輯黃帝內經, 도서출판반룡, 서울, 2000.
10. 池圭鎔 著, 새로운 한의학 터뉘기(1), 일지사, 서울, 1999.
11. 郭東烈 編著, 醫易啓悟, 성보사, 서울, 1997.
12. 姜天奉, 啓蒙傳疑 研究, 退溪學研究院, 1974.
13. 姜孝信, 弘益桓檀經, 東樞桓醫學研究院, 2002.
14. 金碩鎭, 周易傳義大全譯解, 대유학당, 서울, 1996.
15. 金秀吉, 尹相喆, 周易入門, 대유학당, 서울, 1997.
16. 金秀吉, 尹相喆 共譯, 河洛理數(上), 대유학당, 서울, 1997.
17. 李正來 著, 醫易同源(上), 광림공사학술도서, 1993.
18.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여강출판사, (년도 미상).
19. 朱熹 著, 김상섭 해설, 易學啓蒙, 예문서원, 서울, 1996.
20.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동방문화, 서울, 1990.
21. 韓東錫 著, 宇宙變化의 原理, 杏林出版, 서울, 1985.
22. 韓長庚 著, 周易·正易, 삶과 꿈, 서울, 2001.
23. 鄒澍 지음,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下), 아티전, 서울, 1997.